

제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4. 2. 28(금) 09:0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이경재 위 원 장
김충식 부위원장
홍성규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김대희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음

5. 회의내용

① 성원보고

② 국민의례

③ 개회선언

④ 지난 회의록·속기록 확인

- 제7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함

⑤ 회의공개여부 결정

-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함

⑥ 의결사항

가.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 제출에 관한 건(2014-08-039)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65조 및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할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원안대로 의결함(표결처리 결과 찬성 3, 반대 2로 가결됨)

- 검토 의견서 주요내용
 - KBS의 수신료 조정안은 적정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나 수신료 조정의 필요성은 인정됨
 - KBS가 방송서비스의 보편적 제공, 고품질 콘텐츠를 통한 방송문화 발전 및 한류의 재도약을 위한 계획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그러나 수신료 조정은 국민의 부담이 전제되는 만큼 KBS는 자구노력을 보다 강화하고 고품격 방송서비스 제공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 위원회가 KBS의 중기수지를 재추정한 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은 소외된 계층에 대한 수신료 면제 확대, EBS 지원 확대 및 광고 추가 감축 등에 사용되어야 할 것임
 - 위원회는 이번 수신료 조정안이 실현될 경우 KBS가 제시한 광고축소 계획 및 공적채무 이행실태 등에 대해 엄격하게 점검할 예정임

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에 관한 건(2014-08-040)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2014년도 종편PP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을 하고자 허가 신청('14.1.27~1.29)한 제이미디어랩, 미디어랩에이, 조선미디어랩 등 3개 법인의 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 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미디어랩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3개 법인을 종편PP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 허가하되 ▲ 방송광고판매의 공정 거래질서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 마련 ▲ 방송사의 미디어랩 경영 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계획 마련 ▲ 광고판매의 효율성 제고 및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송광고 판매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 방송 및 광고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 지원계획 마련 등의 허가조건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2014-08-041)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 광고 판매대행 유예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종편PP의 방송광고 수수료율 규정(방송 광고판매액의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19이내)과 방송광고 수탁수수료의 타당성을 검토·개선하는 근거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미디어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라. 종합유선방송구역 고시 제정(안) 사전동의에 관한 건(2014-08-042)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8호에 따라 미래부가 사전동의를 요청('14.1.20)한 종합유선방송구역 고시 제정(안)에 대해 사전동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고시 제정(안)은 행정구역 변경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도 고려하고 있으므로 사전 동의하기로 하되,
 - 광주광역시의 경우 행정구역의 경계 변경에도 불구하고 방송구역이 변경되지 않은 일부 지역(북구 일부→서구로 변경, 남구 일부→동구로 변경) 시청자들의 지역채널 시청에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 해당 구역 방송사업자가 변경된 행정구역의 지역방송 프로그램도 편성하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미래부에 통보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

마.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2014-08-043)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중, 관리대상 업체 및 기관에 관한 방통위 소관사항을 명확히 하고, 미래부 소관사항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7] 보고사항

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 운영실태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

- 방송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시청률 상위(AGB 닐슨 미디어리서치 시청률 자료 '13.11월 기준) 채널 18개(MPP 계열사)를 대상으로 방송광고 편성 허용범위(시간당 광고 편성시간) 준수 여부 등 방송광고 운영 실태 조사('13.11.22~28, 7일간) 결과를 김영관 방송기반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
- 씨제이엔엠(주)의 5개(tvN, OCN, 채널CGV, 투니버스, 슈퍼액션)채널, (주)씨유미디어의 2개(드라맥스, 코미디TV)채널, (주)케이비에스엔의 KBS N Sports 등 총 8개 채널(46건)이 시간당 광고시간(매시간 12분 초과금지)을 위반하여 광고를 편성함
- 향후,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방송법시행령 제68조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예정임

나. 종합편성·보도전문 PP '13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 종합편성·보도전문PP 5개 사업자*에 대한 '13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정종기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

* 종편PP 4개 사업자(TV조선, JTBC, 채널A, MBN) 및 보도PP 1개 사업자(뉴스Y)

○ 점검결과 주요내용

- 사업계획서 중 주요 7개 항목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 결과, 사업자들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방안', '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방안' 및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방안'은 전반적으로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방송분야별 편성비율은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이 사업계획 보다 높아 편성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재방비율은 종합편성PP 4개 사업자 모두가 사업계획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균형 발전방안'은 지역과 관련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등 대체로 이행하였으나,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계획 등이 일부 미흡하며, '소수 시청자 지원 방안'은 대체로 이행했으나 다문화가정 교육 및 소수자 배려 프로그램 편성 등이 일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국내 방송장비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R&D) 방안'의 방송장비 국산화 등은 대체로 이행했으나 R&D 실적은 일부 미흡하며,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방안'은 종편PP 4개 사업자 모두 미흡하고 특히 콘텐츠 투자실적이 사업계획 대비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국내제작 및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 여부'는 종편PP 4개 사 모두가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행이 미흡한 항목 중 재방비율과 콘텐츠 투자실적은 지난 '14.1.29일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고, 나머지 항목들은 MBN을 제외한 4개 사업자의 경우 '14.3월에 예정되어 있는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며, MBN은 승인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으므로 이행이 미흡한 항목에 대해 이행을 촉구한 후 그 결과를 '14.11월에 예정되어 있는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 계획임

8 기 타

가.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차기 회의는 별도 통지하기로 함

6. 폐 회 (11:05)